

CJFeed

영양가 만점의 세미나를 찾는다면, CJ FEED로 오세요

CJ제일제당 사료BU(부사장 이병하)는 지난 10월 8일 화성에서 신제품 소개 및 TMR사양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 세미나로는 보기드물게 110여명의 대규모 사양가들이 운집하여 현장의 열기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이번 화성 세미나는 지난달 CJ 축우캠페인의 일환으로 릴레이로 전국적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이 날 TMR사양관리를 발표한 감동근박사는 TMR사료 전문R&D로 “번식에 문제가 없다면 목장의 TMR적용은 성공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TMR사료 적용시 사양가들이 범하기 쉬운 우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TMR 정의로 가볍게 시작한 강의는 영양학적인 접근, 해외시장 TMR정보까지 제공하여 TMR관련 지식의 총망라였다고 할 만큼 양질의 정보를 제공되어 참석한 사양가들의 높은 만족도 나타냈다.

CJ FEED의 한 관계자는 “신제품 네이팜은 오직



젖소만을 위한 TMR사료의 결정판으로 유량 및 번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선태 부장은 “낙농시장의 메가트랜드인 TMR사료 사업을 신뢰의 CJ가 앞장설 것이며, 고객에게 믿음과 수익을 줄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유량과 번식문제동시 해결을 하면서 목장의 경제산치를 높이도록 현장 컨설팅 강화 및 공격적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J FEED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우성사료

2007우성한마음축제 실시

주식회사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10월 3일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2007 우성한마음축제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2년 우성사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이후 2년 마다 실시하는 체육행사로써 그동안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우성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성사료뿐만 아니라 우성양행, 우성운수, 협력회사 임직원들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팀으로 나누어 열띤 응원전과 함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Vision 111, Try Agai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베트남에 이은 중국진출을 통한 성공적인 세계화를 다지고 있으며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대단히 뜻 깊게 마련되었다.

우성사료는 39년 동안 오직 배합사료분야 한 우

물을 고집해온 축산전문기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료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임직원 모두가 다짐하고 또한 최근 어려운 축산현실 속에서 늘 축산인과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거듭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우성사료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성사료는 임직원간 상호 교감을 통한 수평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는 물론 전임직원들이 하나 된 목표를 향해 응집된 강한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낙농 신제품, <오웰빙 시리즈>출시 전국 순회 소개 세미나 개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경주, 안성, 고창에서 일본 북해도 낙농학원대학의 반추영양수의학 분야의 전문가인 오이가와 신(及川伸)교수를 초빙하여 낙농 신제품 오웰

빙 시리즈를 소개하는 <젖소의 행복 만들기>란 주제로 전국의 낙농 경영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웰빙은 우성사료 고유의 축우사료 설계 원리인 토탈뉴리션 개념에 세계적인 낙농전문회사인 프로비미社(네덜란드)의 간 건강에 대한 검증된 노하우를 접목 시켜 지난해 3월에 탄생된 제품으로써 1년 반에 걸친 현장검증을 통하여 그 우수성이 입증되어 이번에 품목과 제조형태를 확대한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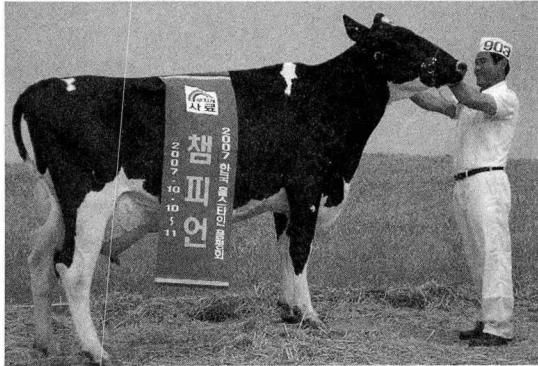
프로비미社 낙농 스페셜리스트 Ieve Hofstede (이유 호프스테드/네덜란드)와 기술제휴로 <간기능 개선과 생산성 향상방안>이란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번에는 반추위의 프로토조아를 콘트롤하는 신물질과 효소분비촉진제(ESS)를 기용하여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사료의 이용효율을 제고함으로써 고곡가 시대에 코스트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제당

2007년 홀스타인 품평회서 야곱목장 3위 입상

2007년 홀스타인 품평회에 (주)대한제당 무지개 사료를 급여한 미래낙농의 주역 9개의 농장에서 14두의 우수축들이 출전하였으며, 품평회 결과 야곱목장(최옥연)의 야곱탱커 더치 보이 266호가 3위에





입상했다.

BOCM PAULS와 5년 동안의 기술제휴를 통한 제품 품질의 차별화 및 농장 방문을 통한 선진 사양 관리 지도로 (주)대한제당 무지개사료의 사용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래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젖소의 연산성을 강조한 번식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제당의 한 관계자는 “(주)대한제당 무지개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는 미래 낙농의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퍼피드(주)

축산지원단 활동 전개

“사료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실현하는 회사” 수퍼피드(주)는 동절기를 맞아 농장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모토아래 축산 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다.

동절기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조그마한 누전에도 쉽사리 화재로 이어지는 국내의 농장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축산 지원단 활동을 농장내 전기 점검과 주요한 전기 시설의 교체로 주력할 예정이다.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축산 농장의 현실에 자그

마한 힘이 되었으면 하는 수퍼피드(주) 임직원 일동의 바람이 녹아 있는 이번 활동은 10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될 예정으로 농장점검을 원할 경우 전화 033) 749-31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한동

34주년 창립기념 행사 개최

한국 동물약품 시장을 선도하고, 동물약품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주)한동 (대표이사:이원규)은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추암리 촛대바위에서 일출을 보며 창립 3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주)한동은 올해 창립기념을 맞이하여 “SMALL BUT TOUGH” 작지만 강한 회사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의 능력 창출을 극대화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주)한동은 1996년 KVGMP(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인증 받고, 2005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주)한동 바이오연구소”가 정식으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연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7년 제1공장 (경기도 화성에 위치)을 최첨단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로 개보수를 완료하여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위



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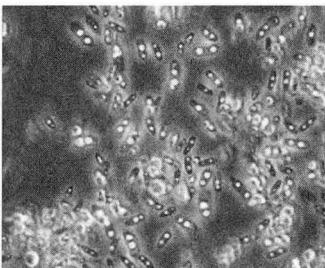
우수한 동물용 의약품 생산에 매진하여 온 (주)한동은 앞으로도 품질과 효과면에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양축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로 남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또한 향후 동물용의약품 등의 관련법 강화와 FTA에 따른 위축되고 있는 축산업으로 인해 동물약품업계의 입지가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위기를 기회로 재창조하는 한동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15년 장기근속, 10년 장기근속, 5년 장기근속, 모범상 등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했다.

청미바이오

파이타아제를 생산하는 미생물균주 CM602 특허 등록



바이오 벤처기업 청미바이오(주) 기술연구소(소장 최성현)는 2006년 9월 특허출원했던 미생물균주 CM602

가 특허등록 완료되었다.

파이타아제는 곡피중의 성분인 파이테이트를 분해하여 가용성 인산을 형성하는 효소로 CM-602가 생산하는 파이타아제는 가축의 체온과 더 가까운 온도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고, 또한 열 안정성 및 pH 안정성도 우수하므로 사료첨가제로서 가축에게 섭취될 경우 우수한 파이타아제 활성을 나타낼 수 있고, 유기태인의 이용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CM-602는 현재 국제특허출원 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제품을 근시일내에 상용화 하여 국내 축산 및 농업현장의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용할 것이다.

중앙진테크

ABS Global의 대표 종모우 “로이”(Roy) – 도태

지난 수년동안 전세계의 낙농가에게 사랑 받아온 미국 ABS 사의 종모우 “로이” (29HO9023 ROYLANE JORDAN-ET) 가 지난 10월 19일 도태되었다.

본 종모우는 전 세계 품평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딸소의 아비로 많이 사용된 쇼 타입 종모우로 평가되고 있다. 본 종모우는 200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전 생애 1백 35만 스트로 생산 및 판매되었다. 특히 유방과 체형점수는 신뢰도가 99%에 이름에도 +2.00이 넘는 우수한 성적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수입 규격에 생산 쪽 부분이 적합하지 않아 수입이 제한되어, 우수 품평회 축을 생산하고자 하는 많은 낙농가들의 아쉬움을 샀던 종모우이다.

또한, 본 종모우는 우리 낙농가에서도 많이 사용했으며, 당대 우수 종모우로 꼽히는 “쥬어러” 아들 소로서 다시한번 혈통의 중요함과 우수성을 입증한 대표 종모우 중의 하나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유수 품평회에 딸소들이 출품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은 많은 로이딸소들이 전 세계 품평회에서 수상을 할 것으로 ABS 사측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